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위탁사무의 기준 및 대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민간위탁의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
- 민간위탁 필요성
 - 한국전선문화관의 전문적, 종합적, 효율적인 관리 운영
 - 舊도심 근대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등 민간의 전문성·경험
활용한 공간 운영 활성화
- 민간위탁 범위 : 한국전선문화관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대구문학관 위탁기간('23.1.~'25.12.)고려, 향후 대구문학관과 한국전선문화관 통합위탁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대구 중구 북성로 104-11(향촌동)



조감도

위치도

- 전체규모 : 지상 1, 2층(연면적 227.4㎡)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한국전선 문화관	지상2층	77.75	미디어아트룸, 창고, 쉼터 등
	지상1층	149.65	전시실, 사무실, 안내데스크, 미디어월(외부)

○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2024년 본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소요예산 : 연 229,5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합 계	229,500	
인 건 비	119,020	· 인력 3명(운영1, 시설1, 청소1)
경상경비	43,035	· 목재보존, 소모품비, 인쇄비 등
공 과 금	56,545	· 전기료(3,300천원*12) 등
일반관리비	10,900	· 기기렌탈, 프로그램 운영 등

3. 검토의견

□ 제안취지

- 한국전쟁 당시 대구 피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상과 작품을 재조명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 중인 ‘한국전선문화관’이 2024년 1월 조성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 있는 전문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대구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인 전선 문화를 재조명하고 대구의 근대 문화자원들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관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인근에 민간 위탁 중인 ‘대구문학관’과 추후 통합 위탁을 고려하여 위탁 기간은 2년(’24.1.1.~’25.12.31.)으로 함.

*대구문학관 위탁기간(’23.1.~’25.12.)

- 중구 향촌동(중구 북성로 114-11)에 조성중인 ‘한국전선문화관’은 연면적 227.4㎡(지상1층~2층)로 지상1층은 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전선 문화 및 예술인들에 대한 소개를 담은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지상 2층은 전선문화 영상 체험이 가능한 실감형 미디어아트룸 등으로 조성될 계획임.
- 주요 위탁업무는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전선문화관련 콘텐츠의 수집·연구·전시, 안내·홍보에 관한 사무가 되겠음.

□ 검토결과

- 옛 대지바⁴⁾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 중인 ‘한국전선문화관’은 2022년부터 39억원(국 9.75, 시 29.25)의 예산을 투입하여 6.25전쟁 당시 활동한 종군작가단 등 대구의 피란문화를 재조명하고 콘텐츠화하려는 사업임.
- 민간위탁 기간을 2년('24.1.1.~'25.12.31.)으로 계획한 것은, 인근에 위치한 대구문학관(위탁기간 : '23.1.1.~'25.12.31.)과의 협업을 위한 통합위탁을 통해 지역문학 콘텐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관리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료됨.
- 다만, 전시·체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관의 특성상 제한적인 건물 연면적(227.4㎡)에 전선문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재현하고 지역의 새로운 전선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선정과 시설 운영 과정에서 舊도심 근대문화자원 등 기존 콘텐츠와 연계하여 향촌동 일원을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이상으로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 행정지원팀장	송정훈 803-5123	문화복지전문위원	이규홍 803-5022
----------------	-----------------	----------	-----------------

4) 피란 예술인의 구심점이던 구상 시인과 박목월이중섭 등 예술가들이 자주 어울렸던 공간(20.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舊 대지바 8.5억 원 매입)